

대중교통 최대 53% 환급... 월 10만원으로 광역교통 무제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월 이용금액 6.2만원 미만일 땐 최소 20%부터 53.3%까지 환급 6.2만원 이상 땐 정액형 혜택 적용 광역교통수단엔 '플러스 정액권'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와 정부의 '모두의 카드(K-패스)'를 통합한 교통카드 서비스 '기후동행카드 플러스'가 도입된다. 월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따라 환급형과 정액형 가운데 유리한 방식이 자동 적용되고, 광역버스·광역철도 이용자를 위한 별도 정액권도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는 대중교통 이용금액 일부를 돌려주는 정부의 '모두의 카드(K-패스)'에 서울시의 무제한 정기권 혜택을 더한 서비스다. 부가서비스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의 협의를 관련 시스템 개선이 끝난 뒤 시행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이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후동행카드-K패스 통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월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6만2000원 미만이면 모두의 카드 방식이 적용된다. 일반 이용자는 이용금액의 20%를 환급받고, 청년·청소년·다자녀 가구·저소득층 등은 최대 53.3%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월 이용금액이 6만2000원 이상이면 기

존 기후동행카드와 같은 정액형 혜택이 적용된다. 일반은 월 6만2000원, 청년·어르신·두 자녀 가구는 5만5000원, 세 자녀 가구와 저소득층은 4만5000원이다.

광역버스와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수단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을 위한 '플러스 정

액권'도 운영된다. 일반은 월 10만원, 청년·어르신·두 자녀 가구는 9만원, 세 자녀 가구와 저소득층은 8만원이다.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는 모두의 카드와 같이 대중교통비를 먼저 전액 납부한 뒤 다음 달 산정된 환급액을 개인 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따름이 할인과 서울달, 서울식물원, 서울대공원 등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게 제공되던 문화·여가시설 할인 혜택은 유지될 예정이다.

기존 기후동행카드는 단계적으로 종료된다. 선불 실물카드와 모바일카드는 7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고, 충전 금액은 8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8월 말까지 이용 가능하며 9월 1일부터 서비스가 종료된다.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현재 모두의 카드나 K-패스를 이용 중인 서울 기후동행카드의 고유가 대응 정책인 '3만원 페이백'은 6월 충전분까지만 적용

된다. 6월 이용분에 대해 8월 환급하는 것을 끝으로 종료된다. 모두의 카드의 고유가 대응 정책인 시차출퇴근 이용자 환급을 확대와 정액형 요금 50% 할인은 9월까지 운영된다.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는 21개 카드사 신청, 6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편의점 선불카드 구매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뒤 카드사 누리집과 K-패스 누리집에 카드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모바일카드는 7월 1일부터 모바일 티머니 앱에서 발급·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는 기존 정액형 무제한 혜택을 유지하면서 이용금액이 적은 시민에게는 K패스 기반 환급 혜택까지 제공하는 방식"이라며 "김포·고양·과천·성남·하남·남양주·구리 등 7개 시군 이용자도 모두의카드(K패스) 등록이 필요한 만큼, 카드 구매 후 반드시 등록 절차를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9월 모의평가, EBS 연계율 50% 유지

오는 9월 2일 실시... 한국사 응시 필수 전 영역 2015 개정 교육과정 근거 출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가 오는 9월 2일 실시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는 17일 '2027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모의평가는 수험생에게 학습 능력을 진단하고 새로운 문제 유형에 적응할 기회를 제공하고, 2027학년도 수능 응시 예정자의 학력 수준을 파악해 분수능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평가는 이번 모의평가에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에게 유리한 문항은 배제하고, 공교육 범위 안에서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은

수험생이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방침이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제2외국어/한문으로 구분된다. 한국사는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전년도와 같이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유지된다.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국어 영역 선택과목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이며, 수학 영역 선택과목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직업탐구 영역

은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며, 2개 과목 선택 시 전문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에 응시해야 한다.

이번 모의평가는 전 영역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해 출제된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의 연계는 간접 연계 방식으로 이뤄지며,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50% 수준을 유지한다.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수험생의 체감 연계도를 높일 예정이다.

응시 대상은 2027학년도 수능 응시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이다. 2026년도 제2회 고졸 검정고시에 지원한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다. 접수는 6월 19일부터 7월 1일까지 진행된다. /이현진 기자

거북섬에 국내 최대규모 '아쿠아리움' 조성

시흥시, 인원그룹과 건립 협약 수조규모 1.1만톤... 2029년 개관 목표

시흥시가 거북섬을 중심으로 한 해양레저관광 도시 조성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 16일 시청에서 인원그룹과 '시흥아쿠아리움(가칭)' 건립을 위한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원그룹과 지난해 4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공개 공모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인원그룹은 아라마루 아쿠아리움을 건립·운영하고 있는 기업으로, 시흥시는 이번 사업을 거북섬 관광 활성화와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확충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흥아쿠아리움은 시화MTV 50호 근린공원 내 약 700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된다. 총 수조 규모는 1만1000톤급으로 계획돼 국내 최대 규모



시흥시가 16일 시청 다수방에서 인원그룹과 시흥아쿠아리움 건립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병택 시흥시장, 김승민 인원그룹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흥시

의 아쿠아리움이 될 전망이며, 2029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사업 부지에는 현재 한국수자원공사가 1000대 규모의 지하 주차장을 조성 중이며, 상부 근린공원과 아쿠아리움이 결합된 복합 관광공간으로 개발된다. 시는 관련 사업에 2000억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 대관람차와 해양레저시설 등과 연계해 거북섬을 수도권 대표 해양관광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시흥(경) = 김대의 기자 dykimi@

지방사립대, '특성화 선도대학'으로 만든다

교육부, 지속가능 특성화모델 지원 내년 850억 투입, 15곳 안팎 육성 2030학년도까지 입학정원 3% ↓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 위기가 커지자 교육부가 내년 850억원을 투입해 지방 사립대 15곳 안팎을 '특성화 선도대학'으로 키운다. 다만 지원을 받으려면 2030학년도까지 입학정원을 3% 이상 줄이고, 강점 분야 중심으로 학과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

교육부는 17일 '2026년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방대학이 지속가능한 특성화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대학혁신지원사업 내 특성화 지원 특성화 지원은 대학혁신지원사업 내 별

도 지원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지방 사립대학이며, 글로벌대학은 제외된다. 선정 대학은 5년간 지원을 받는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대학은 2030학년도까지 입학정원의 3% 이상을 줄여야 한다. 또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학과·학부·단과대학 등을 재구조화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방대학 상당수가 학령인구 감소에도 이른바 '백화점식 학과 운영'을 지속해 고등교육의 질 저하와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보고 있다.

특성화 방향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한다. 대학 간 역할 및 기능 조정, 디지털 전환 특성화, 대학 자체 특성화 등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특히 대학 간 비교우위 분

야를 중심으로 구조를 재편하는 대학 간 역할 및 기능 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A대학과 B대학이 유사한 분야를 함께 운영하는 대신, A대학은 특정 강점 분야에, B대학은 다른 강점 분야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 대학 간 역할 조정 땐 인센티브

대학 간 역할 및 기능 조정에 참여하는 대학에는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정원 감축 기준을 3%에서 2%로 완화하고, 사업비 배분 때 20~50%를 추가 배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교원 이동 활성화를 위한 공개채용 예외 적용, 특성화 분야 교원 이동 시 정년 기준 완화, 학교 간 기자재 교환 허용, 협동수업 학점 인정 범위 확대 등 규제특례도 적용될 수 있다. 특성화대학으로 선정되면 지방대육성법 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0 | 해질 / 19:56

6월 18일 (목) 음력: 5월 4일

수도권 날씨 21~31°C

운중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인천 19/30, 동두천 19/30, 가평 18/30, 파주 19/30, 서울 21/31, 양평 20/31, 수원 21/30, 용인 21/30, 평택 20/31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메트로 한줄뉴스



▲中, 공급망 '급소' 장악하고 수출통제 확대...머스크도 협상 교착

▲트럼프·다카기치, G7서 5분 회동...“자위대 파견 논의 없어” /사진 뉴시스

▲작년 아시아 폭염·홍수로 수백만명 피해...전세게보다 온난화 빨라

▲파리 백화점, 쉬인과 결별...첫 오프라인 매장 연내 폐점 가능성

▲美 봉쇄에도 돈 벌었다...이란 원유 수익, 전쟁중 오히려 증가

▲통상본부장, 몽골과 CEPA 진전 논의...핵심광물 협력강화